

MZ세대의 은퇴인식과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

2021. 12. 15

이규성, 박지혜

CONTENTS

I. 퇴직연금 시장의 미래, MZ세대

II. MZ세대의 은퇴인식 및 퇴직연금 현황

III. MZ세대 퇴직연금 운용의 5가지 특징

1. DC 가입자 평균 대비 투자 지향적
2. 총자산 규모 클수록 적극적 운용
3. 실적배당상품 위주로 변경한 자 비중 28%
4. 퇴직연금 운용의 관심 클수록 양호한 성과
5. 운용정보 취득경로로 뉴미디어 선호

IV. 결론

< 요약 >

- 향후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갈 신세대인 MZ세대(1982년~1996년생)의 은퇴 인식 및 퇴직연금 운용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MZ세대 직장인 중 DC 가입자 1,000명을 선별하여 서베이 조사를 시행했음.
- MZ세대의 은퇴준비 및 예상과 관련한 서베이 조사 결과, 법정 정년(60세 이상)과 유사한 60~64세 구간을 은퇴 예정 시기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세간에 이슈화되고 있는 조기은퇴 움직임과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다고 판단됨.
- 퇴직연금 운용 관련 서베이를 통해 파악한 MZ세대의 퇴직연금 현황과 운용 특징은 다음과 같음.

[DC형 퇴직연금 현황]

– DC형 퇴직연금 자산은 평균 1,974만원(총자산의 6.1%, 금융자산의 25.8%)

[MZ세대의 퇴직연금 운용 특징]

- ① DC 가입자 평균 대비 투자 지향적: DC형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보다 높은 실적배당상품 비중(DC 가입자 평균 21.8% vs. 조사대상 MZ세대 평균 37.6%)
 - ② 총자산 규모 클수록 적극적 운용: 총자산 규모 클수록 실적배당상품 편입비중 높아 운용수익률도 높은 편
 - ③ 실적배당상품 위주로 변경한 자 비중 28%: 최근 2년 이내 실적배당상품 위주 자산배분 변경자 비중 28%(1,000명 중 278명), 변경 후 수익률 개선 경험
 - ④ 퇴직연금 운용의 관심 클수록 양호한 성과: 본인 적립금 자산 및 자산배분 상태를 잘 아는 집단의 퇴직연금 분산투자 정도 및 수익률 양호
 - ⑤ 운용정보 취득경로로 뉴미디어 선호: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정보취득 경로로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 채널 선호도 가장 높음
- MZ세대는 향후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및 장기 분산투자를 기반으로 한 자산배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는 이러한 퇴직연금 운용 관련 금융교육을 MZ세대가 익숙한 온라인 기반 채널 등을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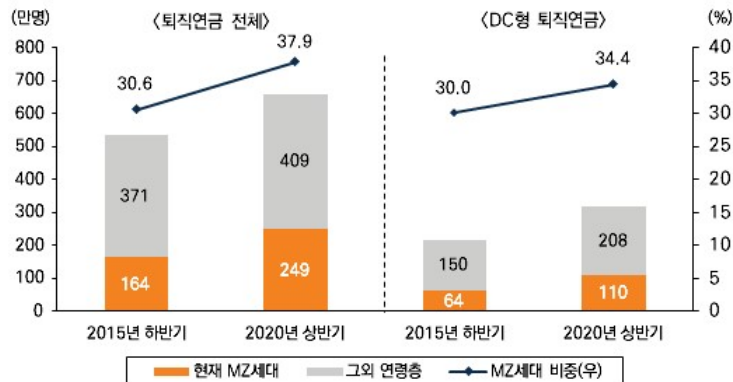
I. 퇴직연금 시장의 미래, MZ세대

◎ 밀레니얼 세대(1982년~1994년생)와 Z세대(1995년 이후 출생자)를 합친 MZ세대는 현재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우리 사회 중심 세대임.

– 핵심 생산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MZ세대 직장인은 현재 만 25~39세(1982년~1996년생)로 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982년~1994년생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1996년생 Z세대 일부로 구성되어짐.

◎ MZ세대 직장인은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 37.9%를,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34.4%를 각각 차지하며, 향후 장기근속과 퇴직급여 적립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을 이끌 신세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도표 1>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 규모 및 MZ세대의 비중



자료: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금리 심화 및 자산가격 상승 환경에서 스스로 투자상품을 통해 은퇴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DC형 퇴직연금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퇴직연금 시장 내에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퇴직연금 시장 성장의 주축을 담당하게 될 MZ세대의 DC형 퇴직연금 운용 인식 및 현황에 대해 점검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며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FIRE(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족’과 같이 충분한 은퇴자산을 일찍 마련해 조기은퇴를 꿈꾸고 이를 위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MZ세대의 은퇴관(觀)에 대한 최근 보도 트렌드와 실제 간 비교·검증을 시도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임.
-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서 미래셋투자자와연금센터는 퇴직연금 운용 특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MZ세대 직장인 중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선별하여 서베이 조사를 진행했음.
- 본 서베이 조사에서는 먼저 MZ세대의 퇴직연금을 이용한 은퇴준비 현황 및 은퇴예상을 살펴봄으로써 세간에 이슈화되고 있는 조기은퇴 움직임과 현실과의 비교평가를 시행함.
- 다음으로 MZ세대의 DC형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주요 특성을 5가지로 분석, 정리하고, MZ세대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및 퇴직연금 시장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MZ세대의 퇴직연금 운용 서베이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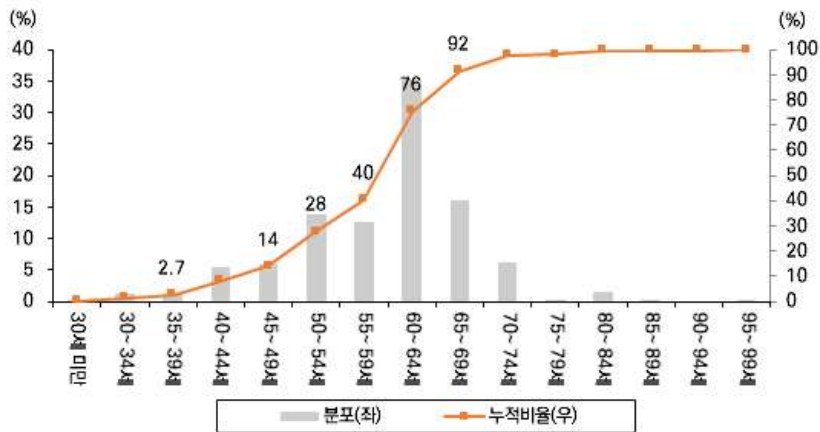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MZ세대 직장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1,000명 - 만 25~39세(1982~1996년생) 연령층 - 수도권(서울경기) 및 전국 7대 도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직장인 -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조사 기간	2021년 11월 8일 ~ 2021년 11월 24일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웹/모바일 조사
조사 내용	- 주요 자산 및 금융자산 현황 - DC형 퇴직연금 적립 및 수익률 현황 - 은퇴 예정 시기 및 퇴직연금 자산 예상 - DC형 퇴직연금 운용 현황 및 인식, 향후 운용 계획 등 - 퇴직연금 서비스 및 운용정보 니즈, 운용정보 취득 채널

II. MZ세대의 은퇴인식 및 퇴직연금 현황

◎ MZ세대의 예상 퇴직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법정 정년과 유사한 60~64세 구간을 답한 비율이 35%로 가장 많음.

- 60세 이상을 은퇴예상 시기로 선택한 비율은 전체 MZ세대 중 60%를 차지하는 반면 50세 미만 조기은퇴 예상 비율은 14%에 그쳐 “과이어족 증가”와 같은 최근 보도 트렌드의 강도와 MZ세대의 은퇴관 사이에 다소의 괴리가 있는 편임.

<도표 2> MZ세대 예상 퇴직연령 분포



※ 조사대상 MZ세대 1,000명 기준

◎ MZ세대의 총자산은 평균 2억 9천만원(중위값 7,600만원)이며, 이는 부동산 79%(약 2억 3천만원), 금융자산 21%(약 6,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MZ세대의 DC형 퇴직연금 자산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의 평균은 1,974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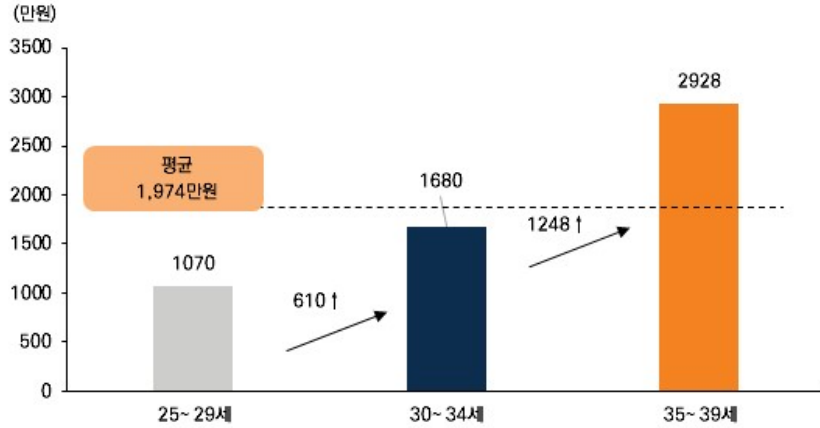
(※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을 인지하고 이를 기입한 사람은 조사대상 MZ세대 1,000명 중 381명임)

- DC형 퇴직연금 자산 평균액인 1,974만원은 MZ세대 총자산의 6.1%, 금융자산 총액의 25.8%를 각각 차지하는 수준으로 파악됨.

- DC형 퇴직연금자산 평균금액을 연령대별로 보면 25~29세 1,070만원, 30~34세

1,680만원, 35~39세 2,928만원으로 파악됐음.

<도표 3> 연령대별 DC형 퇴직연금 적립액



※ 조사대상 MZ세대 1,000명 중 DC형 퇴직연금 자산을 인지하여 응답(기입)한 381명 기준

— 연령대별 퇴직연금자산 평균금액의 격차는 25세~29세 구간에서 30세~34세 구간 사이에서는 610만원, 30세~34세 구간에서 35세~39세 구간 사이에서는 1,248만원으로 시니어 세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구간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력 증가 및 관리자급으로의 직책 상향에 따른 임금상승 기여와 운용수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은퇴시점 예상 퇴직연금 자산을 묻는 설문결과에 따르면 2억원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72%로 주요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은퇴 시점의 예상 퇴직연금 자산의 구간별 비중은 5,000만원 미만 20.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6.8%,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5.0%, 2억원 이상 27.9%임.

III. MZ세대 퇴직연금 운용의 5가지 특징

- MZ세대의 DC형 퇴직연금 운용 관련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운용의 주요 특징을 1) 자산운용 성향, 2) 운용 성과, 3) 자산배분 변경, 4) 자산배분 세부 현황, 5) 운용정보 취득경로 등 5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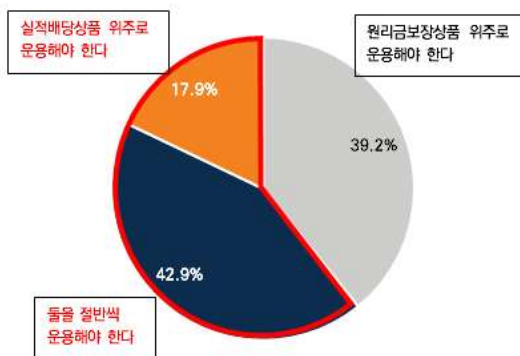
1. DC 가입자 평균 대비 투자 지향적

MZ세대(1,000명)는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이 37.6%로 DC 가입자 전체 평균(21.8%) 보다 뚜렷하게 높아, 상대적으로 적극적 운용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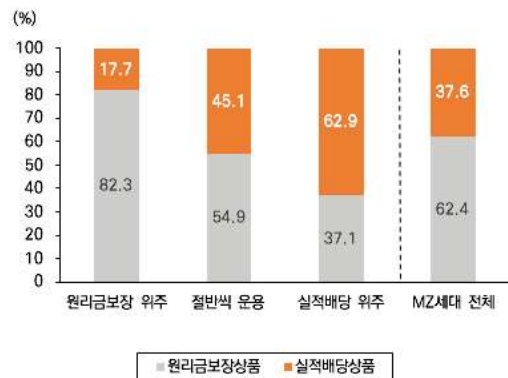
- 조사대상 MZ세대 전체의 실적배당상품 비중은 37.6%로, DC 가입자 전체 평균에 비해 적극적 운용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MZ세대의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37.6%)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전체의 실적배당상품 비중 평균인 21.8%(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021년 3분기 기준)보다 뚜렷하게 높아, 상대적으로 적극적 운용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적배당상품을 중심으로 한 운용을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60.8%에 달함.

<도표 4> MZ세대 운용성향별 비중



<도표 5> MZ세대 운용성향별 상품구성



※ 조사대상 MZ세대 1,000명 기준

－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을 50대50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 42.9%와 실적배당상품 위주 운용이 좋다고 답한 비율 17.9%를 합하면 총 60.8%가 대체로 실적배당상품을 중심으로 한 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 반면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9.2%에 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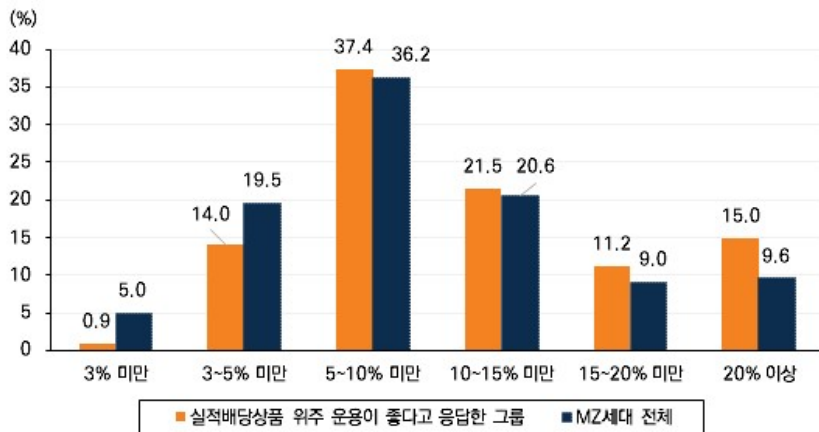
◎ 실적배당상품 위주 운용이 좋다고 답한 그룹과 원리금보장상품 위주 운용이 좋다고 답한 그룹의 실제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은 각각 62.9%, 17.7%로 성향에 따른 실제 실적배당상품의 비중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을 절반씩 배정해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실제 실적배당상품 비중이 45.1%)

◎ 최근 2년 이내 실적배당상품 투자 수익률이 원리금보장상품 대비 얼마나 높을지 묻는 질문에 대해 ‘5%이상 10%미만’ 구간을 답한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음.

－ 실적배당상품 위주 운용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더 높은 초과수익률 구간을 기대하는 비율이 MZ세대 전체에 비해 높았음.

<도표 6> 실적배당상품 초과수익률 응답 수치 분포



※ 수익률 구간은 원리금보장상품 대비 초과수익률 기준

◎ 실적배당상품 위주로 운용하겠다는 그룹의 연금자산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초과수익률은 약 5%대(예적금 금리를 초과하는 수익률)로, 대체로 기대하는 수준(5%이상 10%미만)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총자산 규모 클수록 적극적 운용

MZ세대는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 높아 운용수익률도 높은 편

◎ MZ세대의 총자산(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합) 분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의 최저 수준이 23%인 반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 1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 8% 선으로써 부의 양극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총자산 분위별 DC형 퇴직연금 상품구성을 살펴보면 MZ세대는 보유 총자산이 많아짐에 따라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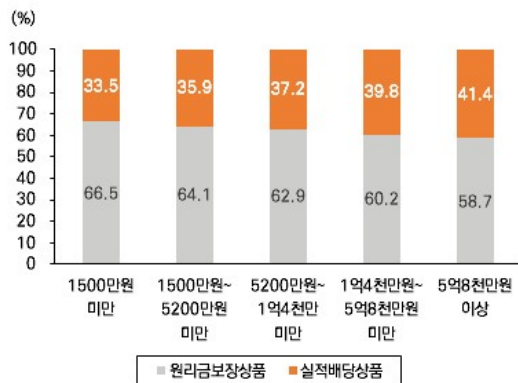
– 총자산 하위 20%(1분위)의 퇴직연금 실적배당상품 비중은 33.5%인 반면 총자산 상위 20%(5분위)의 퇴직연금 실적배당상품 비중은 41.4%에 달하며, 총자산이 클수록 실적배당상품 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임.

· MZ세대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의 인출 시기는 대체로 20년 이후이기 때문에 여유자산이 많을수록 투자를 통해 연금자산을 최대한 축적하고자 하는 니즈가 클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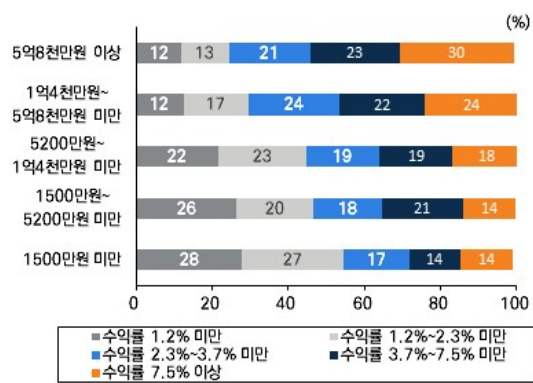
<총자산 5분위 구분 기준>

총자산 5분위 구분은 각각의 구간을 20%씩 균등 분할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1분위 1천5백만원 미만, 2분위 1천5백만원 이상 5천2백만원 미만, 3분위 5천2백만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 4분위 1억4천만원 이상 5억8천만원 미만, 5분위 5억8천만원 이상임.

<도표 7> 총자산 분위별 상품구성



<도표 8> 총자산 분위별 퇴직연금 수익률 구간 분포



※ 수익률 분위: 1분위 1.2%미만, 2분위 1.2%이상 2.3%미만, 3분위 2.3%이상 3.7%미만, 4분위 3.7%이상 7.5%미만, 5분위 7.5%이상

◎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만큼,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도 우수한 경향을 보였음.

- 총자산 분위별 퇴직연금 수익률 구간 분포를 살펴보면, 총자산 상위 20%(5분위) 그룹 중 30%는 7.5%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12% 정도만 1.2% 미만의 저조한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반대로 총자산 하위 20%(1분위) 그룹의 14%가 7.5%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인 반면 이보다 2배 높은 28%는 1.2% 미만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음.

3. 실적배당상품 위주로 변경한 자 비중 28%

MZ세대는 최근 2년 이내 실적배당상품 위주 자산배분 변경 시행률이 28%(1,000명중 278명)에 달하며, 변경 후 수익률 개선을 경험했음.

◎ 최근 2년 이내에 DC형 퇴직연금에서 실적배당상품 위주로 변경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변경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MZ세대 전체 1,000명 중 278명으로 그 비중은 28%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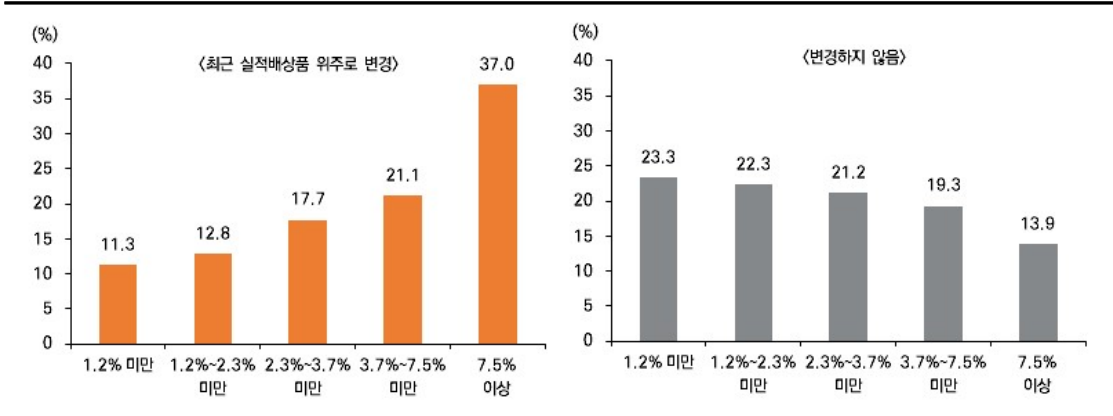
- 과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2018년 7월 17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전체 중 운용지시 변경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0명중 8.6명꼴로, 그 비중이 10% 미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조사에서 MZ세대의 실적배당상품 위주 자산배분 변경 사실 응답 비중이 28%에 달한 결과는 전체 가입자 평균과 비교할 때 MZ세대가 퇴직연금 운용 관심도 등 측면에서 매우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함.

1) 실적배당상품 위주로 변경한 후 수익률 개선

◎ 최근 2년 이내에 실적배당상품 위주로 자산배분 변경을 하였다고 응답한 사람(278명)은 수익률 개선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음.

- 최근 2년 이내에 실적배당상품 위주로 DC형 퇴직연금 자산배분을 변경했다고 답한 사람 중 37%가 수익률 7.5%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 반면, 자산배분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 중 45.6%는 2.3% 미만의 낮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음.

<도표 9> 실적배당상품 변경에 따른 수익률 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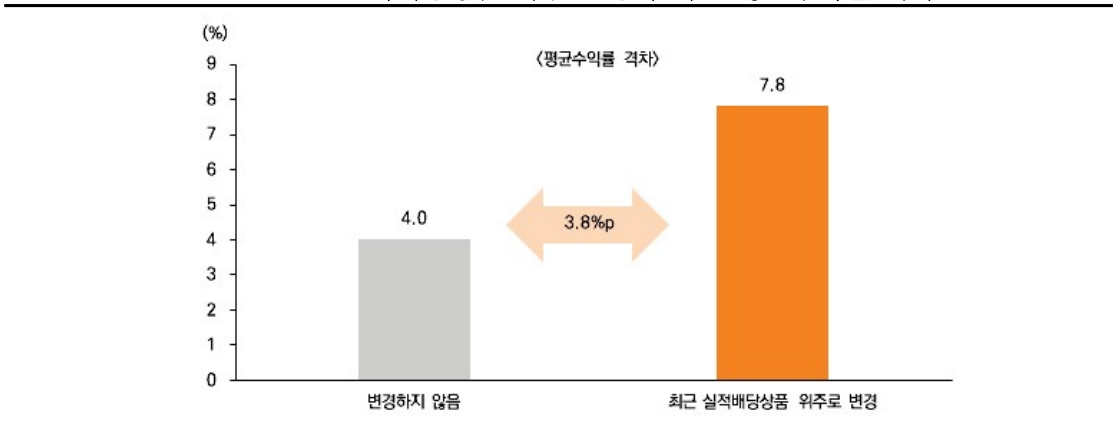


※ 수익률 분위 구분: 1분위 1.2%미만, 2분위 1.2%이상 2.3%미만, 3분위 2.3%이상 3.7%미만, 4분위 3.7%이상 7.5%미만, 5분위 7.5%이상

● 실적배당상품 위주로 변경하였다고 응답한 그룹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변경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그룹의 수익률에 비해 3.8%p 높은 7.8%에 달했음.

- DC형 퇴직연금의 자산배분 변경을 시도했다고 답한 그룹의 최근 3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7.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변경해 본 적 없다고 답한 그룹의 연평균 수익률은 4.0%로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도표 10> 실적배당상품 위주 변경에 따른 평균수익률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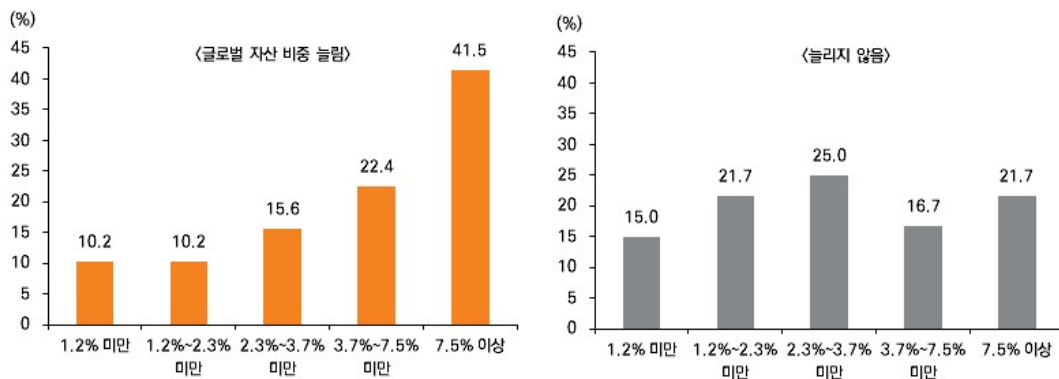
2) 글로벌자산 편입시 수익률 개선

◎ 실적배당상품 위주로 변경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글로벌 자산 비중을 늘렸다고 답한 그룹의 수익률 개선효과가 보다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글로벌 자산 비중을 늘렸다고 답한 사람 중 41.5%는 수익률 7.5%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글로벌 자산 비중을 늘리지 않은 사람 중 36.7%는 2.3% 미만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단순히 실적배당상품 비중을 늘린 응답자 중 37%가 7.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실적배당상품 비중을 늘리면서 글로벌 자산을 추가로 편입한 응답자의 41%가 7.5% 이상의 수익률 달성

<도표 11> 실적배당상품 위주 변경시 글로벌 자산 편입을 통한 수익률 개선효과



※ 수익률 분위 구분: 1분위 1.2%미만, 2분위 1.2%이상 2.3%미만, 3분위 2.3%이상 3.7%미만, 4분위 3.7%이상 7.5%미만, 5분위 7.5%이상

4. 퇴직연금 운용의 관심 클수록 양호한 성과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 및 자산배분 상태를 자세하게 아는 집단의 퇴직연금 운용 성과는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분산투자가 잘 돼 있으며, 수익률이 양호. 특히 상위 수익률 집단의 TDF 활용도가 높은 편

◎ 자산 규모 및 자산배분 상태를 자세하게 아는 집단의 퇴직연금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과 연평균 수익률은 MZ세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 DC형 퇴직연금 자산 규모 및 자산배분 현황을 상세하게 인지하고 이를 기입한 인원은 162명이며, 이들의 퇴직연금은 평균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 44.4%, 펀드(TDF 제외) 39.6%, TDF(Target Date Fund) 9.4%, 리츠(REITs) 5.0%, 기타 1.6%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이들(162명)의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은 55.6%로 전체 평균(37.6%)를 상회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7.8%) 또한 전체 평균(5.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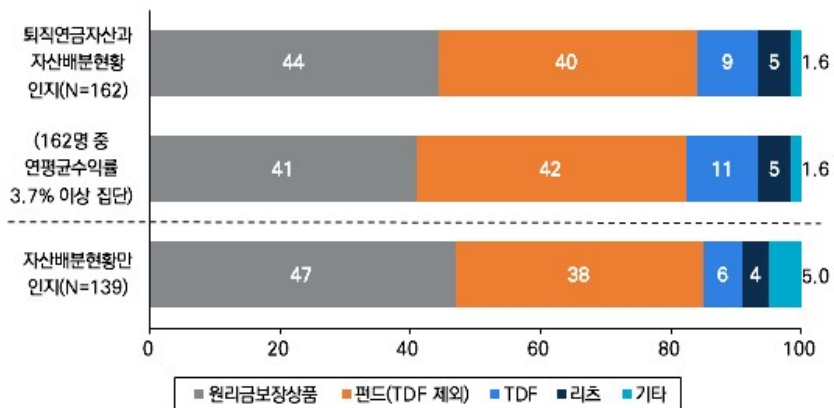
◎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 규모 및 자산배분 현황을 모두 알고 있는 집단은 자산 규모를 잘 알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퇴직연금의 분산투자가 더 잘 되어 있으며, 투자성과도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 퇴직연금 자산 규모 및 배분현황을 모두 알고 있는 집단(162명)의 편입 상품 집중도(HHI: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3,652로, 퇴직연금 자산 규모를 잘 알지 못하는 집단(139명, HHI 3,730) 대비 낮아 투자자산이 잘 분산돼 있으며, 수익률도 대체로 좋음.
(※ 퇴직연금 자산 규모 아는 집단 수익률 7.8%, 자산 규모 잘 모르는 집단 수익률 7.1%)

<허핀달-허쉬만지수(HHI)>

-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시장 점유율이나 금융상품의 매출 또는 편입 집중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각각의 점유율 또는 금융상품 편입비율을 계산 후 이들을 제곱, 합산해 산출함.
- HHI 값이 클수록 한 시장에서의 점유율 또는 금융상품 편입 집중도가 크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HHI 값이 작을수록 한 시장에서의 점유율 또는 금융상품 편입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됨.

<도표 12> MZ세대 퇴직연금의 세부 자산배분 현황



◎ 퇴직연금 자산 규모 및 자산배분 현황을 모두 알고 있는 집단은 자산 규모를 잘 알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TDF를 잘 활용하며, 특히 이들 중 수익률 상위 40%는 TDF 활용도가 더 높았음.

- 퇴직연금 자산 규모 및 자산배분 현황을 모두 알고 있는 집단의 퇴직연금에서의 TDF 편입 비중은 9%로, 퇴직연금 자산 규모를 잘 알지 못하는 집단(6%) 대비 높았음.
- 특히 이들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3.7% 이상인 상위 40% 구간 집단의 경우 TDF의 편입 비중은 11%로 더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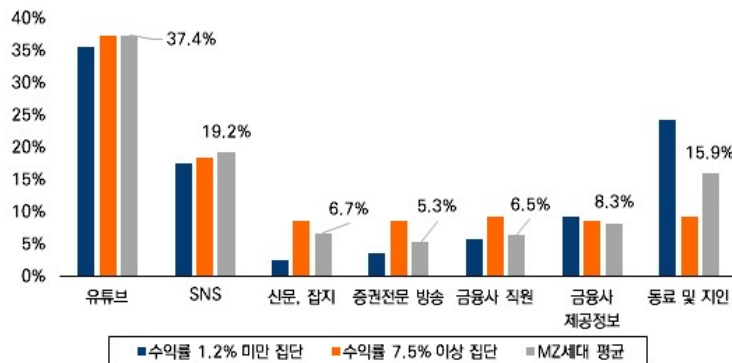
5. 운용정보 취득경로로 뉴미디어 선호

MZ세대는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정보취득 경로로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 채널을 최선호함.

◎ MZ세대는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정보취득 경로로서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 채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MZ세대는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 유튜브(YouTube) 등 영상매체(37.4%)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답했으며, 이어서 SNS(사회관계망 서비스)(19.2%), 동료 및 지인(15.9%), 금융사 제공정보(8.3%), 신문 및 잡지(6.7%), 금융사 직원(6.5%), 증권전문 방송(5.3%)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답함.

<도표 13> 퇴직연금 운용 관련 선호하는 정보취득 경로



◎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 이외에 다른 정보취득 경로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 수준에 따라서 일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음.

－ 연평균 수익률 상위 20%(7.5% 이상) 그룹은 금융전문가 채널(금융사 직원 9.2%, 증권전문방송 8.7%, 신문·잡지 8.7% 등)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였음.

－ 반면 수익률 하위 20%(1.2% 미만) 그룹은 금융전문가 채널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신 동료 및 지인(24.2%)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활용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IV. 결론

◎ MZ세대의 은퇴준비 및 예상과 관련한 서베이 조사 결과, 법정 정년(60세 이상)과 유사한 60~64세 구간을 은퇴 예정시기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세간에 이슈화되고 있는 조기은퇴 움직임과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다고 판단됨.

— 은퇴 예정시기로 법정 정년과 유사한 60~64세 구간을 가장 많이 선택(36%)했으며, 65세 이상에서 은퇴를 예상하는 비율도 24%로 적지 않았음.

— 반면 50세 이전 조기은퇴를 예상하는 비율은 14%에 그쳐 조기은퇴에 대한 세간의 이슈화 정도와 비교할 때 MZ세대의 실제 생각은 평범한 수준에 더 가까웠음.

◎ MZ세대의 퇴직연금 운용 인식 및 투자성과 관련한 서베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음.

〈 MZ세대 DC형 퇴직연금 운용의 5가지 특징 〉

1. DC 가입자 평균 대비 투자 지향적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 높아 상대적으로
적극적 운용성향 보이는 것으로 파악
(DC 가입자 평균 22% vs. 조사대상 MZ세대 평균 38%)

2. 총자산 규모 클수록 적극적 운용

MZ세대는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 높아 운용수익률도 높은 편

3. 실적배당상품 위주로 변경한 자 비중 28%

최근 2년 이내 실적배당상품 위주 자산배분 변경자
비중 28%(1,000명 중 278명), 변경 후 수익률 개선

4. 퇴직연금 운용의 관심이 클수록 양호한 성과

본인 적립금 자산 및 자산배분 상태 잘 아는 집단의
퇴직연금 분산투자 정도 및 수익률 양호

5. 운용정보 취득경로로 뉴미디어 선호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정보취득 경로로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 채널 선호

- ◎ MZ세대는 그동안 주식 직접투자 등에 대해 다른 세대와 다른 적극성을 보였던 만큼 최근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도 투자 지향적 성향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MZ세대는 향후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및 장기 분산투자를 기반으로 한 자산배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운용에서 꾸준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적배당상품 비중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 자산배분에 있어서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음.
 - 구조적인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자동 자산배분형 장기투자 상품인 TDF와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더불어 중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리츠(REITs) 등 인컴형 자산에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테마형 ETF(상장지수펀드)를 포함한 미래 성장분야의 펀드 투자를 더해 초과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정보취득에 있어 근거가 미약하거나 미확인 정보의 가능성이 높은 경로에 의존하기보다 금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문가 채널 및 경로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 금융기관은 이러한 퇴직연금 운용 관련 금융교육을 MZ세대가 익숙한 온라인 기반 채널 등을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자산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01 글로벌로 분산투자 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03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04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05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는 투자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투자연금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41]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2019.8
- [42]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 2019.10
- [43]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2019.11
- [44] 초저금리시대의 자산운용 5대 전략, 2019.11
- [45] 변액연금의 진화와 노후자산관리, 2019.12
- [46] 밀레니얼 세대, 新투자인류의 출현, 2020.7
- [47] 5060 세대의 의료비 지출 및 보험보장 실태, 2020.9
- [48]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분석 및 시사점, 2020.11
- [49] FAANG을 넘어 BBIG로, 2020.11
- [50] 저금리·장수시대의 도래와 美 연금시장의 대응, 2020.12
- [51] 5가지 키워드로 본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와 미래, 2020.12
- [52] 코로나19가 가져온 퇴직연금 시장의 5가지 변화, 2021.11

투자연금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